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송 아 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의 현황과 특징
- III.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 IV. 맺음말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과 특징

-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

송 아 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전북지역은 지형적으로 동부산간지대와 서부평야지대로 대별된다(김승옥 2017:33). 서부평야지대에 위치한 만경강유역권은 북으로는 금강정맥과 금강, 동으로는 호남정맥, 남으로는 모악지맥, 서로는 서해안과 접하는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 있다(양영주 2013:). 선사시대의 만경강은 서해안에서부터 전북 내륙 깊숙이까지 이어지는 수운교통로이자(송종열 2015:53) 동부산간지역과 서부평야지대를 잇는 문화 결절지로서 역할하였다(천선행 2019:55). 이 일대는 해발 3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발달하고 강변 충적지와 너른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증가하였다(천선행 2019:72).

한반도에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큰 변혁을 일으켰던 송국리문화가 금강유역으로부터 호남지역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의 상한은 기원전 8~6세기이다(김규정 1999:103; 2016:193). 송국리문화의 하한은 기원전 4세기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김규정 2016:193), 지역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기원전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천선행 2019:64). 청동기시대 중기 만경강유역권에서도 인구의 집중과 더불어 대형 취락의 형성, 취락 간의 분화, 거주 방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의 소형화, 무덤 축조의 심화, 도구 제작 기술의 변화, 생계수단의 다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전 4~3세기에 이르면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경 만경강유역권은 청동기시대 후기 세형동검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한수영 2011:22).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 문화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회의 기저 문화(천선행 2019:78)라는 점에서 통시적인 연구대상이다. 그동안 만경강유역권의 송국리문화, 점토대토기문화, 세형동검문화, 초기철기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물질문화의 규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만, 각 문화별 물질자료의 현저한 차이와 단절성 때문에 관련 연구는 특정 문화나 시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도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정의나 시간적 범위가 한국 고고학의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김승옥 2017:48)인 것은 이러한 연구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 주제도 각 시

대의 시기를 세분하는 편년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문화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의 유물들이 교차 출토되는 양상이나, 부장유물의 차이를 부각한 질적인 해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만경강유역의 고대경관과 교통망, 생계경제를 복원하여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의 이주 경로를 추정한 참신한 시도(송종열 2015:52-69)가 있어 주목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도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송국리사회를 병합한 점토대토기집단의 우월성에 대해서만큼은 질적인 해석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한 듯하다.

물질자료에 대한 질적인 비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문화의 특징과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의 양적인 패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질자료의 변이와 그 분포 패턴에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였던 사람과, 사람이 속한 사회적 시스템이 직·간접적으로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문화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 대상은 무덤 자료이다. 무덤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산물로, 무덤이 쓰이지 않았거나 저조했던 이전 시기와 대비되는 중기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무덤은 이후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나 세형동검문화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비교는 비교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공간 분석 스케일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안은 조기 설정 여부, 전기 세분 정도,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본고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을 통해 축조집단의 사회문화상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점토대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전-중-후 3분기 편년안을 시간적 틀로 삼는다. 전기 무덤에 대해서는 일단 만경강유역권에 전기로 볼 수 있는 무덤이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전기-중기 무덤 편년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별고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공간적으로 만경강유역권은 인접한 금강유역권과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천선행 2019:70-71), 이번 연구에서는 만경강유역권의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5개 시군만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분석 내용은 1) 유적의 분포 양상, 2) 무덤의 입지 및 구조, 3) 부장유물의 조합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 무덤의 분포 양상과, 중심분포권의 범위 및 밀도를 비교하여 집단의 공간 활용에 대한 통시적 변화를 살펴본다. 밀도 분석의 경우 아크GIS의 커널분석(kernel analysis)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무덤 자료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주거지 자료를 활용하여 당대의 주민이 매장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유구와 유물 분석은 관련 자료에 대한 양적인 패턴 분석을 시도하여 통계적인 특징을 추출한다. 자료의 분포 패턴에는 장지를 정한 뒤, 구조물을 만들고 부장품을 제작·사용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적 규범 등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분석된 내용은 1) 유적의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2) 무덤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3) 부장품 제작·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라는 논점을 가지고 종합하여 고찰한다.

Ⅱ.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의 현황과 특징

1. 유적의 분포 양상

1) 중기-후기 무덤유적의 분포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무덤의 공간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중기 무덤유적 52개소와 후기 무덤유적 50개소를 대상으로 중기-후기 무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기 무덤유적은 전주에 21개소 익산에 21개소가 분포하고 군산, 김제, 완주에 4개소 이하가 분포한다(표 1). 이와 비교해 후기 무덤유적은 전주, 익산, 완주에 각각 16개소 14개소 13개소씩 분포하고, 김제에 6개소 군산에 1개소가 분포한다. 지도를 통해 보면 후기 무덤유적의 공간적 분포는 중기 무덤유적이 활발히 축조되었던 전주, 익산지역으로 이어지는 한편, 전주 서쪽의 완주지역에 새로운 분포권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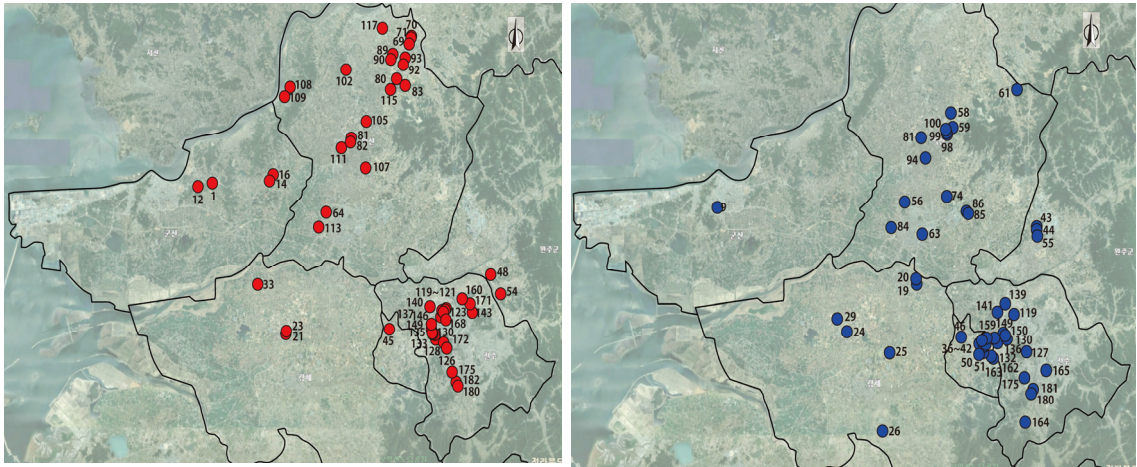


그림 1. 중기-후기 무덤유적 분포도: (左) 중기, (右) 후기 ※유적번호는 <표 4>와 동일

표 1.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유적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중기 무덤유적	4	3	3	21	21	52
후기 무덤유적	1	6	13	14	16	50

그런데 지역별 유적 개수와 무덤의 수량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중기 무덤 279기와 후기 무덤 290기를 대상으로 아크GIS 커널분석(kernel analysis)을 이용해 무덤의 밀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적 분포도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중기-후기 무덤의 주요 분포범위와 밀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었다(표 2, 그림 2). 현재까지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익산 무형리·어량리유적 일대와 군산 축산리유적일대,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유적 일대로 확인된다. 이에 비

해 후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완주 신평, 익산 마동유적 일대로 중기 무덤과는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중심분포권을 형성하였다. 또한 중기 무덤은 익산, 군산, 전주지역 중심분포권들의 밀도가 주변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유적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반면, 후기 무덤은 완주와 익산의 중심분포권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 높은 밀도로 집중 분포하는 양상임이 확인된다. 그로 인해 후기에는 소수의 중심 유적에서 대규모의 무덤이 축조되며 무덤군 규모의 분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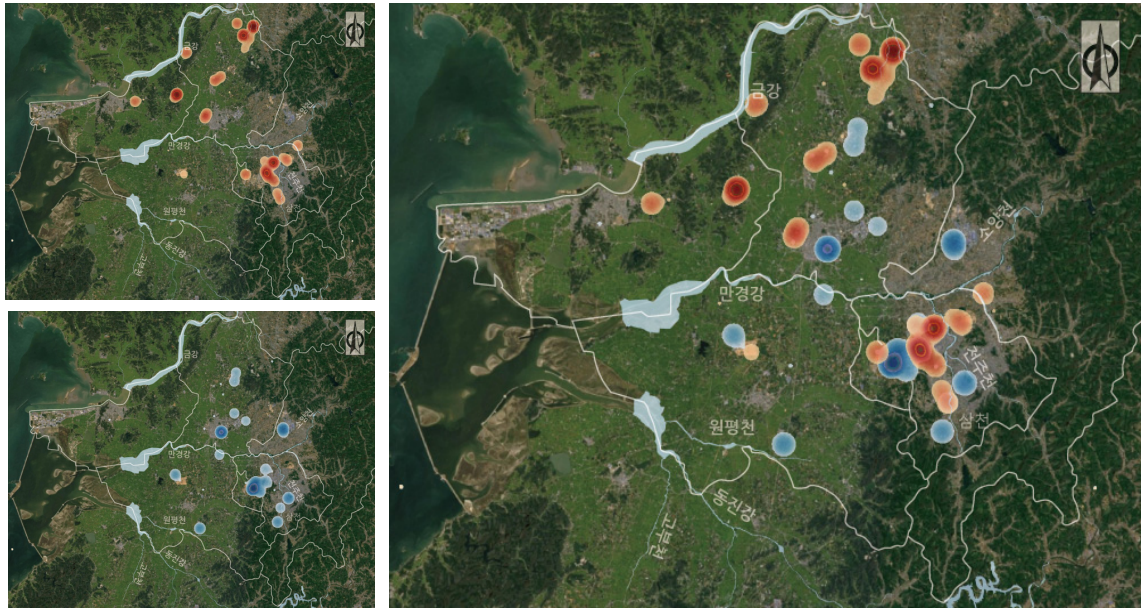


그림 2. 중기-후기 무덤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左上) 중기, (左下) 후기, (右) 중후기

표 2.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중 기 무 덤	43	3	14	125	94	279
후 기 무 덤	1	23	139	68	59	290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기무덤은 만경강을 기준으로 북쪽지역인 익산 북부일대(무형리, 어량리, 화신리 등)와 익산 중부일대(울촌리, 장신리 등), 군산 동부일대(축산리, 축산리 계남 등)에 분포한다. 반면 가장 큰 규모의 후기 무덤은 익산 남부일대(마동 등)에서 확인되며, 익산 중부일대(구평리, 오룡리, 서두리 등)에는 소규모로만 분포한다.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높았던 군산지역에서는 둔율과 선제리유적 외에 후기 무덤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았던 지역인 완주 둔산리, 청등수계리에 큰 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형성된다.

흥미롭게도 만경강 남쪽지역에서는 그와 상반된 양상이 확인된다. 기존에 소규모의 중기 무덤이 소수로 분포하였던 김제지역에는 서정동, 수록리 등 중소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형성된다. 가장 현저한 변화는 전주 서쪽의 완주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곳은 중기 무덤이 소규모로 분포하는 반교리유적 외에 중기 무덤군이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후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갈동, 덕동, 중동 일대에 후기 무덤이 집중 분포하며 대규모 무덤군을 이루게 된다.

한편, 만경강 남쪽에 위치한 전주지역에서는 상이한 공간분포 패턴이 확인된다. 전주천 서쪽 일대에 위치한 여의동, 만성동, 동산동, 효자동유적은 만경강 남쪽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기 무덤 또한 중기 무덤이 성행했던 여의동, 만성동유적이나 인접한 원장동, 중인동, 중화산동 등 동일한 권역에 중소규모로 입지한다. 이는 중기-후기 무덤이 서로 구분되는 공간에 분포하는 패턴을 보였던 만경강 북부의 익산·군산·완주지역이나 만경강 남부의 김제·완주지역과 달라 만경강 남부의 전주지역에서는 상이한 문화 변화 과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중기-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전술한 중기-후기 무덤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내포된 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 무덤과 주거유적의 주된 분포권 및 매장-생활공간의 구분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일부 동일유적에서 확인된 중-후기 유구들은 지역별로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만경강유역권에는 후기 무덤유적에 비해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거유적의 수가 현저히 적다. 따라서 관련 분석은 중기 무덤 279기와 중기 주거지 545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3).

큰 스케일에서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중심분포권은 거의 일치하되, 무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주거유적이 공간적으로 더 넓은 분포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주거지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중기 무덤과 주거유적의 공간적 분포상에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다(그림 3). 만경강유역권 내 중기 주거지의 절대 수량 및 밀집도는 동산동, 효자동, 송천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전주지역이 월등히 높다. 이 일대는 전주지역 무덤유적의 중심분포권과도 일치하는 곳이지만, 주거지의 수에 비해 무덤의 수가 1/3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만경강 남쪽 시군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간취되는데, 김제와 완주지역은 주거지의 수에 비해 무덤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만경강 북쪽의 익산지역은 만경강유역권 내에서 중기 주거지가 두 번째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무덤 간의 비율이 1:1로 유사하다. 다만 주거유적은 무덤유적처럼 익산 북부·중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군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거지의 수보다 무덤의 수가 2배가량 많아, 만경강 남쪽의 주거지-무덤 분포 비율과 대조를 이룬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기 무덤유적과 주거유적의 공간적 분포밀도 특징은 만경강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대비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만경강 북부지역은 중기 무덤의 밀도가 주거지에 비해 높고, 남부지역은 중기 무덤의 밀도가 주거지에 비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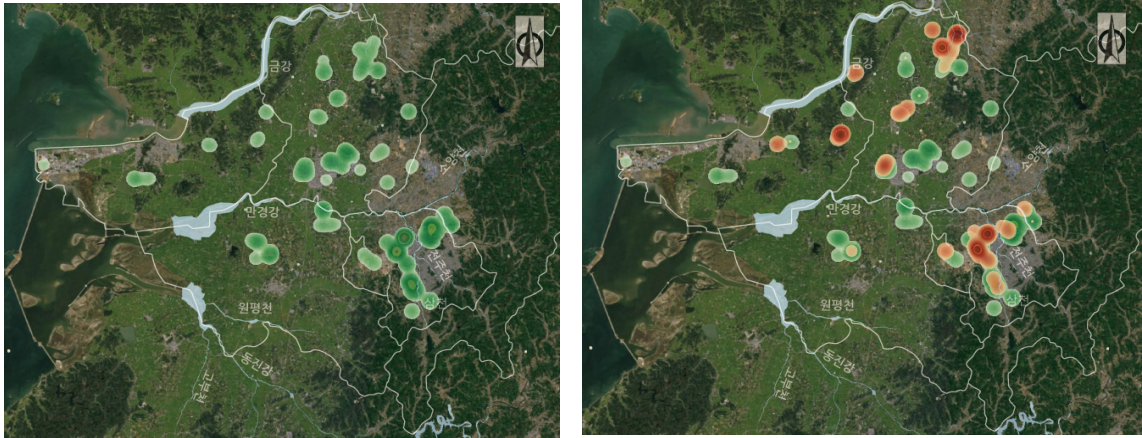


그림 3. (左) 중기 주거지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右) 중기 무덤지와 무덤의 중심분포권과 밀도

표 3.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 무덤과 주거지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계
무 덩	43	3	14	125	94	279
주 거 지	26	60	33	143	283	545

다음으로 유적 내에서 매장-생활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후기 무덤과 주거유적 185개소를 분석한 결과(표 4, 표 5), 중기 무덤군, 중기 주거지군, 후기 무덤군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는 149개소 이상이었다. 물론 제한된 범위에 대한 발굴조사 때문에, 주변의 다른 유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부터 무덤과 주거지의 공간이 분리되는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유적 내에서 무덤과 주거지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매장공간과 생활공간이 어떻게 쓰였을까. 중기 무덤과 주거지가 함께 확인된 유적 21개소 중 양자가 같은 입지에 혼재해 있는 경우는 9개소이다. 그 중 익산 모현동2가유적 섬다리지구와 전주 여의동선사유적 2개소에서는 주거지와 무덤 간에 중복관계가 확인되어 동일한 입지에 주거지와 무덤이 시차를 두고 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호가시권 안에서 매장과 생활공간을 뚜렷이 분할하여 사용하였던 경우는 14개소이다. 따라서 앞서 단독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거, 무덤유적들을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중기는 매장공간과 생활공간의 구분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한 유적 내에서 중-후기 유구가 함께 확인된 14개 유적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후기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다. 분석된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중-후기 유구가 동일한 공간에 입지하는 사례와 공간이 분할되는 사례의 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관찰된다는 점이다. 한 유적 내에 중-후기 유구가 공간을 분할하여 분포하는 경우는 김제 반월리4, 상동동 I, 완주 신평 I 가, 익산 마동 I, 부송동석치고개, 전주 효자동함대Ⅳ유적에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중-후기 유구가 동일한 공간에 입지하는 사례는 익산 서두리1유적을 제외하고는 동산동쪽구름, 만성동 원만성A, 만성동 원만성(전북연), 여의동2-1, 중인동, 효자동Ⅲ, 효자동함대Ⅴ유적 등 대부분이 전주

지역이다. 이를 중기-후기 무덤 분포 분석에서 전주지역은 중기 무덤유적의 중심분포권에 후기 무덤유적이 분포하였던 양상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지역은 중-후기유적의 공간 분포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지형상에서도 중-후기 무덤이 동일한 입지에 혼재하거나 후기 무덤이 선대 유구를 파괴하고 위치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주 동산동, 만성동, 여의동, 효자동 일대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유적이 가장 대규모로 분포하는 곳이다. 이처럼 중기 문화가 성행했던 지역에서 후기 무덤이 동일한 공간과 입지에 분포하는 특징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후기 주거지 중 가장 대규모에 속하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경우도 중기 주거지가 입지했던 구릉 정상부에 9기의 후기 주거지가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만경강유역권 무덤 및 주거유적의 공간분포 분석 결과는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 변동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시할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뒷장에서 종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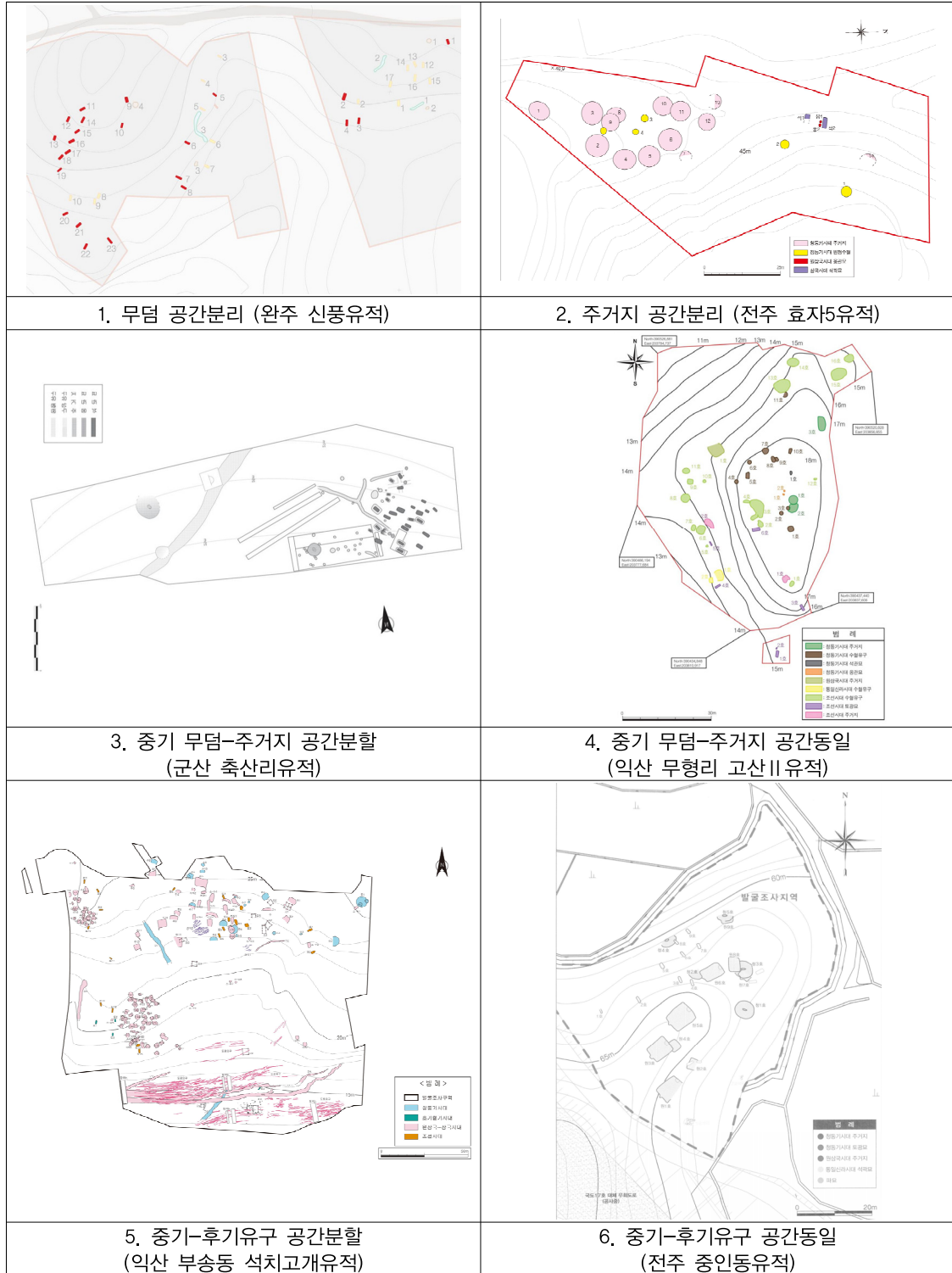
표 4.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양상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1	군산	고봉리 Ⅱ	1	3	-	중기공존	94	익산	어양동	-	-	1	분리
2		고봉리 D	-	1	-	분리	95		영등동 I	-	6	-	분리
3		관원리 Ⅱ가	-	3	-	분리	96		영등동 Ⅱ	-	3	-	분리
4		관원리 Ⅱ나	-	1	-	분리	97		영등동 Ⅲ	-	7	-	분리
5		개사동	-	6	-	분리	98		오룡리 3	-	-	1	분리
6		옥정리	-	2	-	분리	99		오룡리 4	-	-	1	분리
7		미룡동	-	2	-	분리	100		오룡리 5	-	-	2	분리
8		도암리	-	1	-	분리	101		와리금성Ⅱ가	-	2	-	분리
9		둔율	-	-	1	분리	102		와리금성Ⅱ나	1	-	-	분리
10		띠섬 IB	-	1	-	분리	103		와리정동	-	8	-	분리
11		띠섬 ⅡA	-	1	-	분리	104		왕궁리	-	4	-	분리
12		아동리	6	-	-	분리	105		용기리 I	1	7	-	중기공존
13		여방리남전A	-	1	-	분리	106		용기리 Ⅱ	-	2	-	분리
14		축산리계남 I	5	-	-	분리	107		용연리	1	-	-	분리
15		축산리계남Ⅱ	-	2	-	분리	108		웅포리	7	-	-	분리
16		축산리	31	2	-	중기분할	109		웅포곰개나루	1	-	-	분리
17	김제	검산동	-	2	-	분리	110		원수리	-	6	-	분리
18		내죽리	-	4	-	분리	111		울촌리분구묘	8	4	-	중기공존
19		반월리 2	-	-	3	분리	112		울촌리	-	2	-	분리
20		반월리 4	-	15	1	중후기분할	113		장신리	8	4	-	?
21		부거리 I-1	1	3	-	중기공존	114		팔봉동	-	1	-	분리
22		부거리 I-2	-	6	-	분리	115		호암리 나	1	-	-	분리
23		부거리 Ⅱ	1	9	-	중기분할	116		호암리 다	-	2	-	분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24	완주	부거리 XII	-	-	1	분리	117	전주	화산리신덕	7	-	-	분리
25		상동동 I	-	1	1	중후기분할	118		홍암리	-	1	-	분리
26		서정동 II	-	-	10	분리	119		동산동쪽구름	1	-	1	중후기동일
27		석담리 B	-	2	-	분리	120		동산동취락	3	65	-	중기분할
28		석담리 D	-	3	-	분리	121		동산동 I 가	5	-	-	분리
29		수록리 A	-	-	7	분리	122		동산동 II 나	-	1	-	분리
30		수록리 B	-	9	-	분리	123		동산동 II 다	18	-	-	분리
31		양청리	-	3	-	분리	124		동산동 II 마	-	3	-	분리
32		월봉리	-	1	-	분리	125		동산동 II 저	-	1	-	분리
33		장산리(호남)	1	-	-	분리	126		마전 III-1	6	11	-	중기분할
34		장산리(전북)	-	1	-	분리	127		마전 IV	-	-	1	분리
35		효정리	-	1	-	분리	128		만성동지석묘	6	-	-	분리
36		갈동 I	-	-	4	분리	129		만성동 B	-	1	-	분리
37		갈동 II	-	-	13	분리	130		만-원만성 A	5	5	2	중후기동일
38		갈산리	-	-	3	분리	131		만-원만성 C	-	6	-	분리
39	익산	덕동 D-1	-	-	3	분리	132		만-원만성 I	-	-	1	분리
40		덕동 F-1	-	-	2	분리	133		만-원만성 1-1	8	6	-	중기분할
41		덕동 G-1	-	-	1	분리	134		만-원만성 1-2	-	5	-	분리
42		덕동 G-2	-	-	1	분리	135		만-원만성 1-3	1	3	-	분리
43		둔산리서당 1	-	-	6	분리	136		만-원만성 1-4	-	1	2	중후기동일
44		둔산리서당 2	-	-	19	분리	137		반룡리 I	2	1	-	중기분할
45		반교리 가	7	2	-	중기분할	138		반룡리 II	-	2	-	분리
46		반교리 나	-	-	1	분리	139		반월동222-5	-	-	1	분리
47		상림리	-	-	-	분리	140		반월동265 1	3	-	-	분리
48		상운리 III 나	6	1	-	중복후행	141		반월동265 3	-	-	3	분리
49		상운리 III 라	-	8	-	분리	142		봉곡 II	-	3	-	분리
50		신평 I 가	-	5	57	중후기분할	143		송천동2가	1	16	-	중기공존
51		신평 I 나	-	-	24	분리	144		송천동97-20	-	5	-	분리
52		옥정	-	4	-	분리	145		송천동 B	-	1	-	분리
53	익산	운교 I	-	13	-	분리	146		여의동선사	4	1	-	중기분할
54		운교 II	1	-	-	분리	147		여의동용정	-	1	-	분리
55		청등수계리	-	-	5	분리	148		여의동 1	-	8	-	분리
56		계문동	-	-	1	분리	149		여의동 2-1	11	-	2	중후기동일
57		광암리	-	2	-	분리	150		여의동 2-2	-	4	1	분리
58		구평리 II	-	-	4	분리	151		여의동 203	-	3	-	분리
59		구평리 IV	-	-	1	분리	152		오-붓내 A	-	4	-	분리
60		금성	-	1	-	분리	153		오-붓내 C-1	-	1	-	분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연번	지역	유적명	중기		후기	공간분포
			무덤	주거	무덤					무덤	주거	무덤	
61		금곡	-	-	1	분리	154		오-화정 A	-	13	-	분리
62		덕기동	-	2	-	분리	155		오-오매 A-1	-	4	-	분리
63		마동 1	-	3	47	중후기분할	156		오-오매 A-2	-	7	-	분리
64		모현동섬다리	7	2	-	중기분할	157		오-오매 A-3	-	17	-	분리
65		모현동목동	-	1	-	분리	158		오송리	-	6	-	분리
66		모현동학동	-	2	-	분리	159		원장동G	-	-	5	분리
67		모현동(창고)	-	1	-	분리	160		월평리	2	-	-	분리
68		모현동(교회)	-	7	-	분리	161		장동Ⅱ	-	7	-	분리
69		무형리고산Ⅱ	3	3	-	중기공존	162		중동A 다	-	-	10	분리
70		무형리포변가	15	-	-	분리	163		중동A 라	-	-	1	분리
71		무형리포변나	22	-	-	분리	164		중인동	-	5	9	중후기동일
72		보삼리	-	1	-	분리	165		중화산동	-	-	15	분리
73		부송동	-	3	-	분리	166		척동 I	-	1	-	분리
74		부송동석치	-	9	4	중후기분할	167		척동 Ⅱ	-	2	-	분리
75		부송동242-73	-	5	-	분리	168		팔복동	1	-	-	분리
76		부평 I	-	5	-	분리	169		평화동대정	-	1	-	분리
77		부평 Ⅱ	-	3	-	분리	170		평화동	-	1	-	분리
78		삼담리상북지	-	5	-	분리	171		필-북내C-1	6	4	-	중복후행
79		삼담리호천가	-	5	-	분리	172		황방산지석묘	3	-	-	분리
80		삼담리호천나	2	-	-	분리	173		효자4 I	-	12	-	분리
80		서두리1	3	-	1	분리	174		효자4 Ⅱ	-	2	-	분리
82		서두리2	3	-	-	분리	175		효자4 Ⅲ	3	4	1	중후기동일
83		석천리	2	-	-	분리	176		효자5 IB	-	14	-	분리
84		송학리	-	2	1	분리	177		효자-신주 I	-	6	-	분리
85		신동리 6	-	-	1	분리	178		효자-함대 I	-	3	-	분리
86		신동리 7	-	-	2	분리	179		효자-함대Ⅲ	-	5	-	분리
87		신용리갯점	-	1	-	분리	180		효자-함대Ⅳ	3	-	2	중후기분할
88		쌍계리	-	4	-	분리	181		효자-함대Ⅴ	-	5	2	중후기동일
89		어량리 가	23	5	-	중기분할	182		효자-함대Ⅶ	2	1	-	중기분할
90		어량리 나	5	-	-	분리	183		효자-함대Ⅷ	-	1	-	분리
91		어량리 마산	-	8	-	분리	184		효자-함대Ⅸ	-	4	-	분리
92		어량리 상밭	3	-	-	분리	185		효자동동모	-	-	-	분리
93		어량리 중밭	2	4	-	중기공존	※ 유적의 구분은 조사구역을 기준으로 함						

표 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후기유적 내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패턴



2. 무덤의 입지 및 구조

이번 장에서는 무덤 축조 과정에서 실천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이자, 역으로 그것을 제한하기도 하였던 사회적 규범의 특징 및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569기의 종류와 입지 및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 중기-후기 무덤의 비교

(1) 무덤의 수량과 종류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중기 무덤은 지석묘 12기, 석관묘 99기, 석개토광묘 45기, 토광묘 45기, 옹관묘 78기이다. 전체에서 석관묘가 35%로 절대 수량이 가장 많으나, 옹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도 각각 28%와 32%로 확인되어 크게 세 종류의 무덤이 비슷한 비율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석묘는 단 4%에 불과한데, 만경강유역권은 여타 전북지역을 비롯한 다른 유역권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비율이 낮은 것(천선행 2019:71)으로 알려져 있다(표 6).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수를 참고한다면,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절대 수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비율상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후기 무덤은 토광묘 264기, 옹관묘 26기로 토광묘가 전체의 91%에 달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무덤 종류가 선택되었고, 후기로 갈수록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표 6.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전북지역 지석묘 현황(천선행 2019:71 수정 후 인용) ※()=유적 수

구분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전주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수량	24 (12)	11 (4)	90 (35)	-	42 (11)	2178 (242)	84 (31)	36 (20)	217 (64)	83 (36)	125 (31)	83 (35)	123 (34)	140 (51)

(2) 무덤의 입지, 장축방향, 규모

중기-후기 무덤은 입지나 장축방향에서도 다른 패턴을 보인다(그림 4). 중기 무덤은 51:49의 비율로 구릉정상부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였던 반면, 후기 무덤은 90% 이상이 구릉 사면부에 입지하였다. 또한 장축방향에 있어 중기에는 46:54의 비슷한 비율로 등고선과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무덤을 축조하여 시신의 안치 방향을 정했으나, 후기에는 97%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무덤 자리를 마련하고 시신의 안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정형화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중기-후기 무덤의 기본 규모와 평면형태의 특징은 묘광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옹관묘는 비교군에서 제외하였다(그림 5). 중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평균 166cm 중위수 153cm, 단축길이는 평균 81cm 중위수 68cm이고, 후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평균 212cm 중위수 211cm, 단축길이는 평균 78cm 중위수 72cm이다. 중기-후기 무덤의 규모는 장축길이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중기 무덤의 장축길이는 후기 무덤에 비해 분산이 큰 특징을 가진다. 그로 인해 무덤의 평면형태가 중기에는 장방형~세장방

형으로 다양한 반면, 후기에는 세장방향으로 정형화되어 간다. 따라서 중기에는 시신을 안치할 때 무덤의 규모에 따라 신전장, 굴장, 세굴장 등을 병행했고, 후기에는 신전장을 기본으로 하는 규범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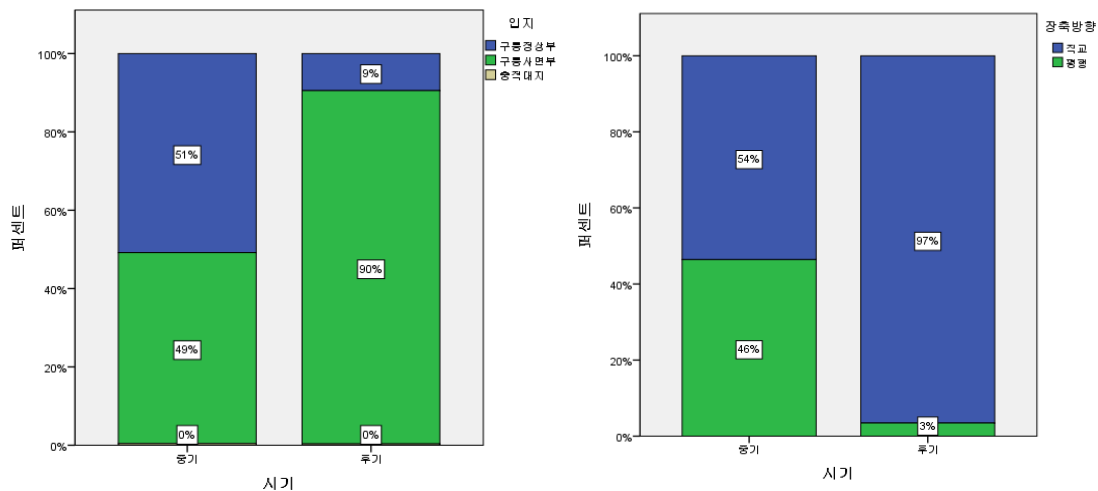


그림 4. 중기-후기 무덤의 입지(左)와 장축방향(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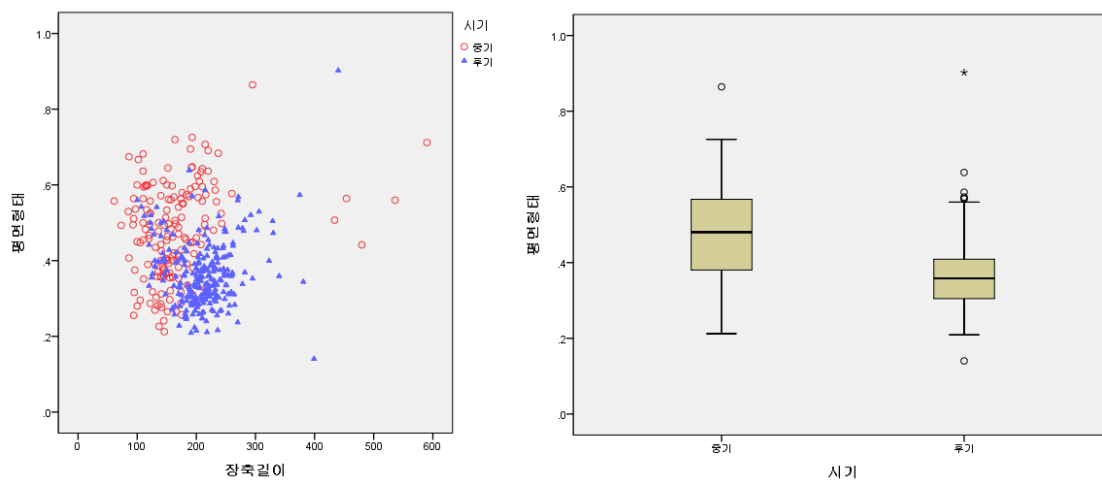


그림 5. 중기-후기 무덤의 규모: (左) x=장축길이 y=평균형태. (右) 평균형태

(3) 무덤의 구조

중기-후기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는 묘제가 동일한 토광묘(석개토광묘, 토광묘)와 옹관묘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중기-후기 토광묘 구조의 비교 요소로는 굴광방식, 묘광깊이, 시상대, 관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이 있다. 묘광을 굴광하는 방식에 있어 중기 무덤은 1단굴광과 2단굴광을 56:41의 비율

로 다양하게 사용한 반면, 후기 무덤은 1단굴광의 비율이 94%이상으로 매우 높다(그림 6). 하지만 묘광의 깊이는 역으로 후기 무덤이 깊은데, 후대 삭평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적인 수치이다. 이것은 중기-후기 집단이 시신을 매장하는 데 선호하였던 깊이의 차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기 무덤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다중 굴광은 묘광의 깊이를 깊게 굴광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행위여서, 양자의 깊이 차이는 무덤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던 도구의 기능이나 효율성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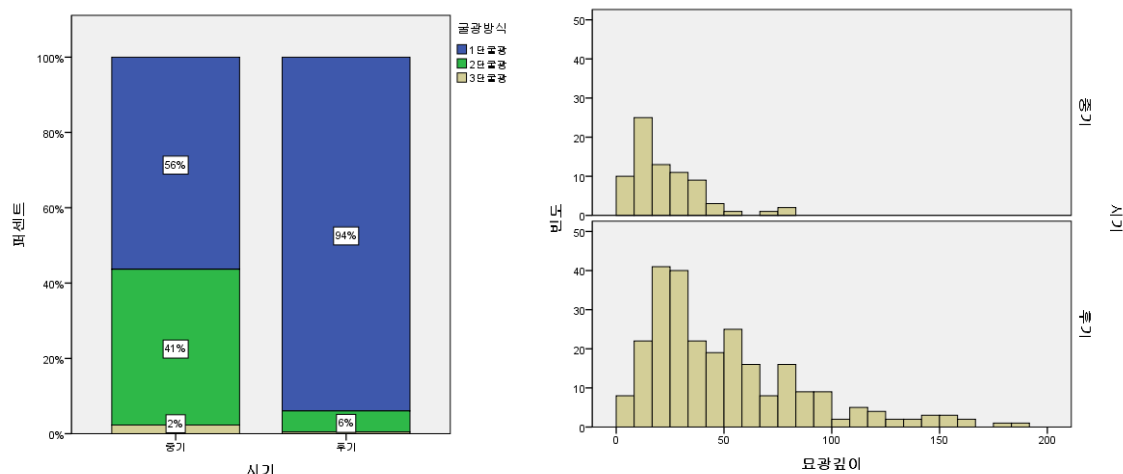


그림 6. 중기-후기 토광묘의 구조: (左) 굴광방식, (右) 묘광깊이

중기-후기 토광묘는 시상대와 관내시설의 설치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그림 7). 시상대는 시신이 안치되는 바닥시설인데, 중기 토광묘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토기편과 할판석을 깔아 시상대를 마련한 비율이 상당하다. 반면에 후기 토광묘는 생토면을 정지한 후 바로 사용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V자형의 토층양상이나 내부에서 확인되는 목질흔으로 보아 후기 무덤은 관재판이나 통나무판을 짜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따로 시상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 토광묘 중에는 바닥에 직경 20~30cm 정도의 수혈을 설치한 것이 11기가 확인된다. 이 수혈에 대해서는 시원적 형태의 요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토광에 바로 시신을 안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 추정된다.

중기-후기 옹관묘 구조의 비교 요소로는 옹관의 정치형태와 묘광의 규모 그리고 옹관의 크기와 기형 등이 있다. 옹관은 단옹이나 2개 이상의 합구옹을 직치, 사치, 횡치하여 매납된다. 중기 옹관묘는 단옹을 직치하거나 사치하여 매납하는 방법이 81% 이상으로, 후기 옹관묘는 2개 이상의 옹관을 횡치하는 것이 96%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표 7).

표 7. 중기-후기 옹관묘의 정치형태

구 분	직치+단옹	직치+합구옹	사치+단옹	사치+합구옹	횡치+단옹	횡치+합구옹	계
중 기	38	2	19	2	3	6	70
후 기	-	1	-	-	2	2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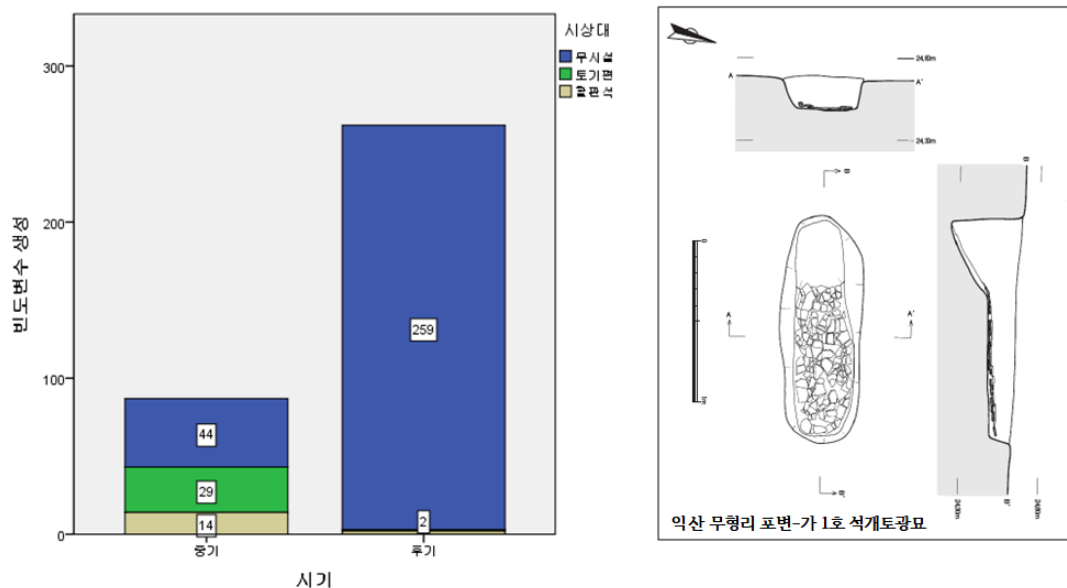


그림 7. 중기-후기 토광묘의 구조: (左) 시상대, (右) 토기편시상대와 수혈 설치 (석개)토광묘

그로 인해 옹관묘를 매납하기 위한 굴광의 형태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그림 8). 중기 옹관묘의 굴광은 평균 장축길이 62cm, 단축길이 51cm이고, 후기의 경우는 각각 91cm, 52cm이다. 평면형태 또한 중기 옹관묘는 장단비가 1에 가까운 원형이 많고, 후기 옹관묘는 길이비가 2:1 정도의 타원형이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은 옹관을 정치하는 방법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런데 최근 익산 어량리가1호·가4호·나1호, 용기리 I1호, 완주 상운리나3호, 전주 동산동가1호, 동산동취락1-1호·1-2호, 반룡리 I-2호 옹관묘와 같이 중기 무덤 중 단옹이나 합구옹을 횡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기별로 옹관을 정치하는 형태에 주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장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중기 옹관으로 분류된 횡치옹이나 합구옹 중 옹관의 크기나 기형이 일반적인 중기 토기와는 구별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끝으로 중기-후기 옹관묘 기형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려 한다. 옹관 104개 중 계측 가능한 것들을 수량 분석한 결과, 중기-후기 옹관은 전반적인 크기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 중기 옹관은 기고 46cm, 동최대경 35cm, 저경 11cm이고, 후기 옹관은 기고 37cm, 동최대경 34.5cm, 저경 8.2cm여서 중기 옹관이 후기 옹관보다 크기가 크다(그림 8). 시기별 옹관의 크기는 단옹이나 합구옹을 사용하였던 장법의 차이와 연관된다. 합구옹에 횡치를 선호하던 후기에 비해 중기는 주로 단옹을 직치한 까닭에 크기가 큰 것이다. 이에 비해 중기-후기 옹관의 구경은 너비가 평균 22cm, 21cm로 비슷하여, 구연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비율인 구경/동최대경과 목경/동최대경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기 옹관은 동최대경에 비해 목과 구연이 좁은 호 형태이고, 후기 옹관은 동최대경과 목경, 구경의 너비에 큰 차이가 없이 바라지는 기형이 많았다(그림 9). 이러한 수치상의 특징은 구연부 형태를 분류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중기 옹관의 구연부는 내만외반한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후기 옹관은 목이 직립하거나 직립외반하는 기형이 48% 정도

로 다수를 차지한다. 옹관의 구연부 형태도 결국 단옹을 직치·사치한 뒤 좁은 구연 위를 석개나 토개로 덮거나, 2개 이상의 옹관을 횡치하여 합구시키는 방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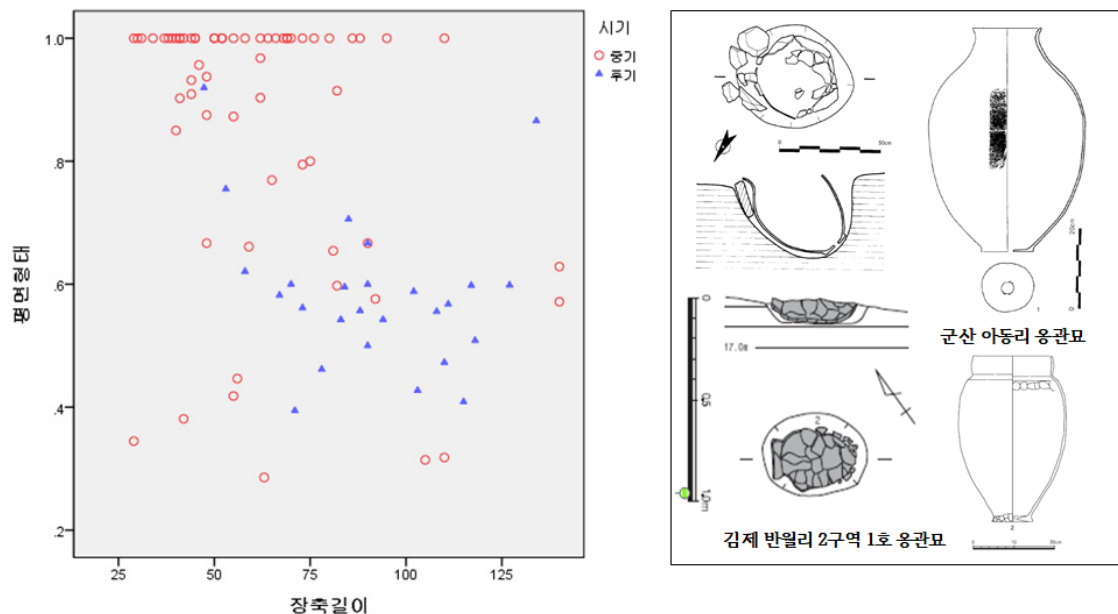


그림 8. 중기-후기 옹관묘의 규모 및 구조: (左) x=장축길이 y=평면형태 (右) 중기-후기 옹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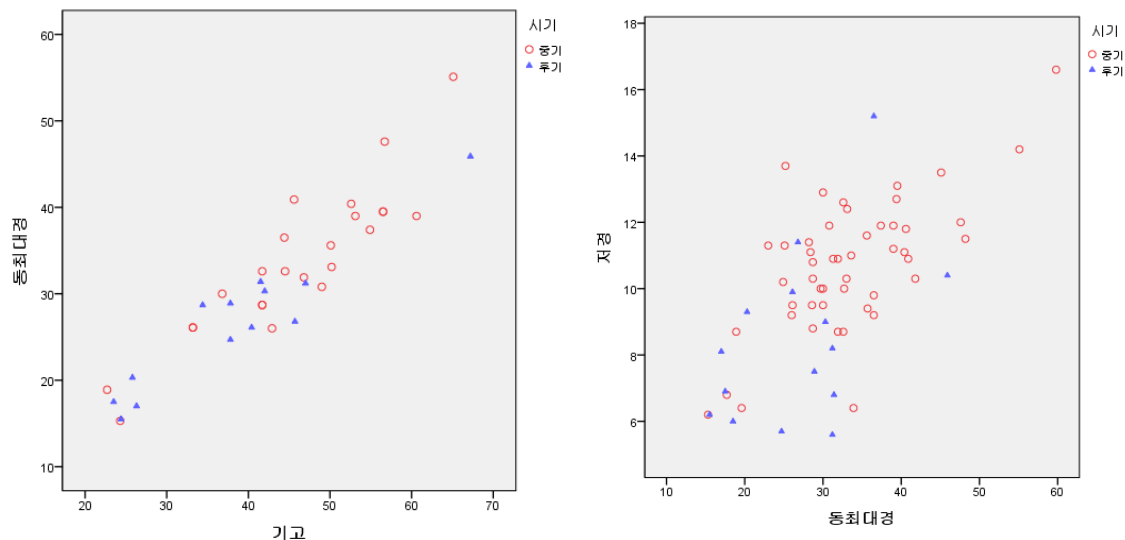


그림 8. 중기-후기 옹관의 크기: (左) x=기고 y=동최대경, (右) x=동최대경 y=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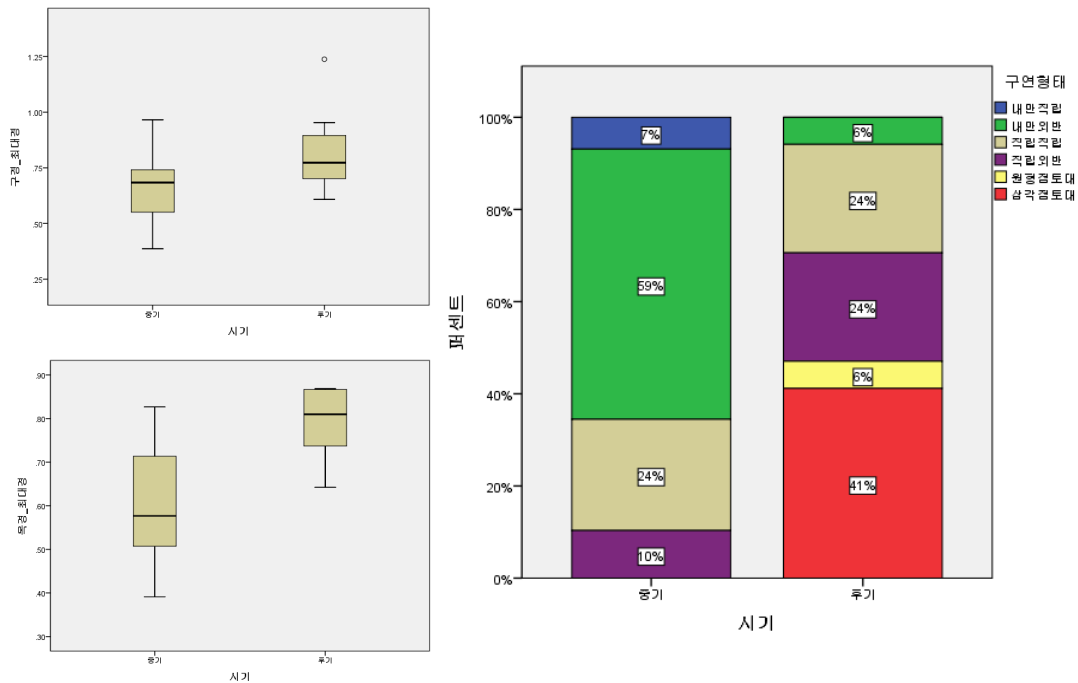


그림 9. 중기-후기 웅관포 구연부 형태: (左上) 구경/동최대경, (左下) 목경/동최대경, (右) 구연형태

2) 중기 무덤의 지역별 비교

중기-후기 무덤의 종류, 입지, 장축방향, 규모, 구조 등을 검토한 결과, 중기 무덤에 비해 후기 무덤이 여러 요소에서 정형화된 규범을 따라 축조되었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만경강 유역권 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양상이었던 중기 무덤의 특징이 세부 지역별로는 어떠한지, 그것은 유의미한 지역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무덤의 수량과 종류

만경강유역권 내 중기 무덤 289기를 분석한 결과, 무덤의 수량이나 선호되었던 묘제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8). 무덤의 수는 익산지역이 125기로 가장 많고, 전주 94기, 군산 43기, 완주 14기, 김제 3기이다. 무덤의 절대적인 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정도와 관련성이 깊지만,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은 김제나 완주지역에서 후기 무덤이 상당수 확인된 것을 보면 비율상의 특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정량의 무덤군이 확인된 군산, 익산, 전주를 대상으로 묘제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선호된 무덤의 종류는 상이했다. 군산은 석관묘가 전체의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정 묘제가 주를 점하는 모습이다. 익산은 석관묘 36%, 석개토광묘+토광묘 27%, 웅관묘 37%로 지석묘를 제외한 묘제들이 대동소이하게 쓰였다. 전주는 상대적으로 지석묘의 비율이 높고 석관묘는 15% 정도로 낮은 한편, 석개토광묘+토광묘가 52%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석관묘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석관묘와 지석묘를 구분하여 묘제의 비중을 단정짓는 것은 유보한다.

표 8. 지역별 무덤 수

구 분	군 산		김 제		완 주		익 산		전 주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중 기	후 기
지 석 묘	-	-	-	-	1	-	-	-	11	-
석 관 묘	38	-	-	-	2	-	45	-	14	-
석개토광묘	-	-	-	-	6	-	15	-	24	-
토 광 묘	-	1	1	17	1	137	19	52	24	56
옹 관 묘	5	1	2	3	4	2	46	16	21	1
계	43	2	3	20	14	139	125	68	94	57

(2) 무덤의 구조

묘제의 수량이나 비율에서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는 바, 묘제별 입지나 장축방향, 규모, 구조상에서도 지역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무덤의 입지에서는 옹관묘가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는 비율이 특기하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묘제별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장축방향은 석관묘가 등고선과 평행하는 비율이 높고, 석개토광묘+토광묘가 등고선과 직교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시신을 안치하는 방향에서 지역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중기 무덤의 지역적 특징은 각 묘제별 세부구조에서 확인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석관묘를 중심으로 지역별 중기 무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석관묘의 특징은 큰 틀에서 군산·익산지역과 전주지역이 대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구성 요소(속성)에 따라 세 지역 간의 유사도가 달라지거나 점이적인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석관묘의 평면형태는 평균 장축길이 144~155cm, 단축길이 68~74cm로, 장단비 0.47정도의 장방형이 일반적이다(그림 10). 군산·익산지역의 석관묘는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전주지역에서는 장축길이 300cm, 단축길이 200cm 이상 큰 규모의 석관묘도 축조된다. 묘광은 대체로 1단으로 굴광하지만, 군산과 전주에서는 2단이상으로 굴광하는 비율이 각각 32%, 43%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묘광의 굴광방법은 석관묘의 규모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석관묘 규모의 차이는 관 부재와 관을 짜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석관묘의 관 부재는 판석형, 할석형, 혼축형로 구분되는데, 군산·익산의 석관묘는 97%이상이 판석으로 만들어졌고 전주는 판석형과 할석·혼축형이 43:57의 비율로 사용되었다(그림 10, 표 9). 따라서 자연히 석관을 짜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군산지역의 석관묘는 돌을 세로로 세워 벽을 세운 입수적 형태가 46%로 가장 많고, 돌을 가로로 세운 와수적 형태가 29%, 양자를 섞은 입와수적 형태가 25%이다. 익산지역의 석관묘는 입와수적이 50%, 입수적이 32%, 와수적이 14%, 난적이 5%로 세부 방법상의 특징은 빈도를 달리하지만, 군산지역과 동일하게 돌을 세워 벽을 짜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전주는 할석을 얹혀 쌓아 올린 평적이 42%로 가장 많고, 난적도 25%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입수적과 와수적은 각각 17%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무덤의 시상대를 설치하는 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적 차이가 관찰된다(그림 11). 전주지역에서는 할판석을 깔아 시상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지역성을 갖는다. 군산지역에서는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한 비율이 89%로 대다수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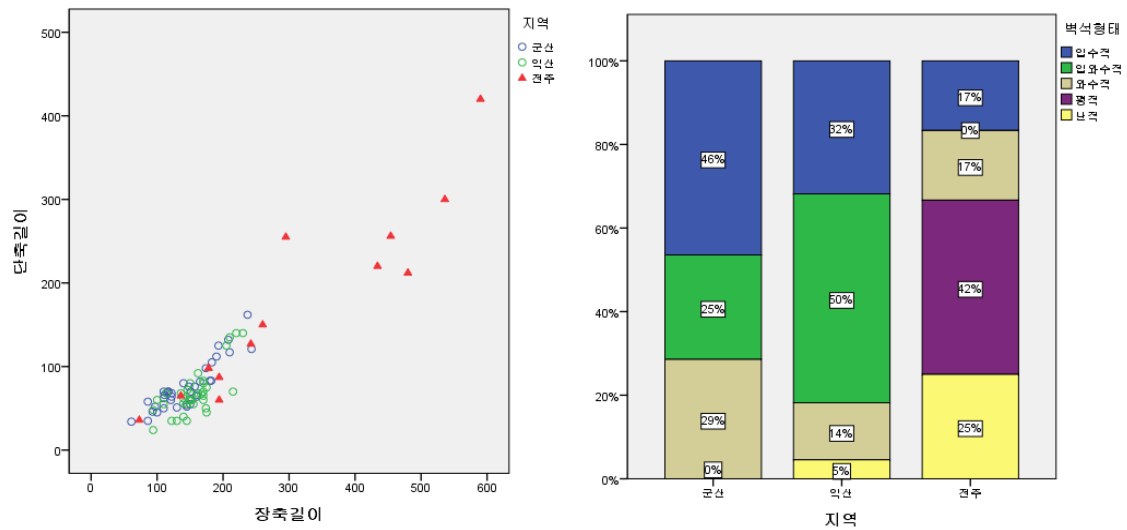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별 석관묘의 규모와 벽석형태: (좌) x=장축길이 y=단축길이, (우) 벽석형태

지하고, 익산지역에서는 토기편시상대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으로, 깨어진 형태 그대로 토기편을 깔아 관대를 마련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 외 익산지역 석관묘의 특징에는 관내에 수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다. 익산지역 석관묘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토기편 시상대나 관내에 설치된 수혈은 이 일대의 석관묘뿐만 아니라 석개토광묘, 토광묘에서도 두루 사용된다. 전주나 군산, 완주지역에서도 토기편시상대나 수혈을 설치한 석관묘가 존재하여 관련 요소의 점이적인 분포상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익산지역에서 높은 빈도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유의미한 지역색으로 볼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전주 동산동, 여의동, 필천리, 효자동 일대에서 할판석의 시상대를 설치한 석개토광묘와 토광묘가 존재하여, 지역성이 강한 무덤 구성 요소가 묘제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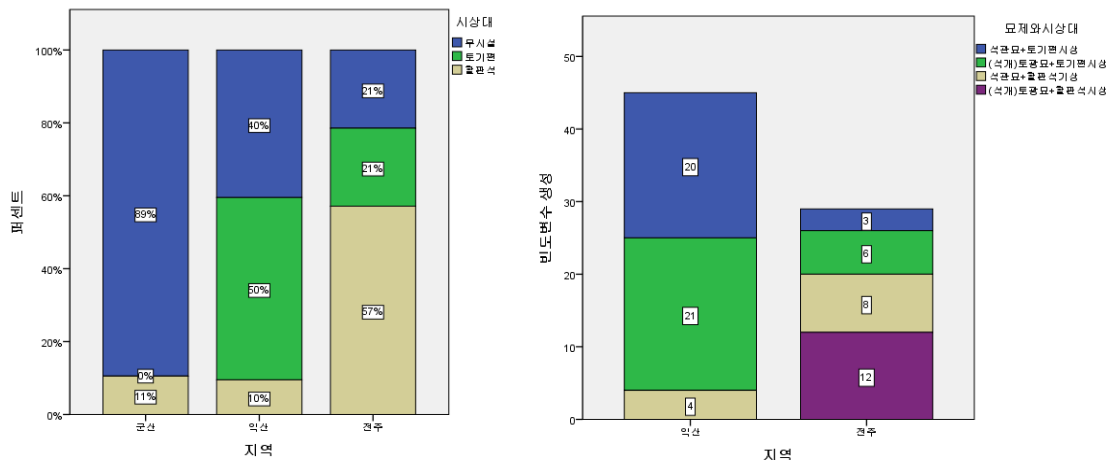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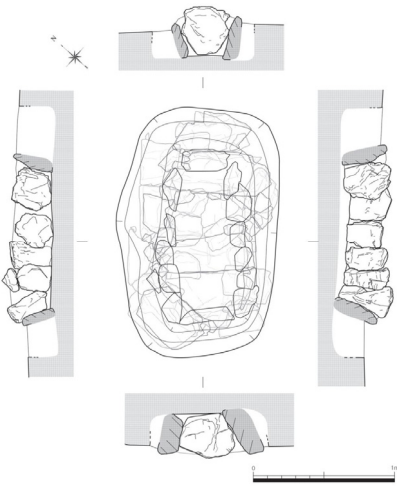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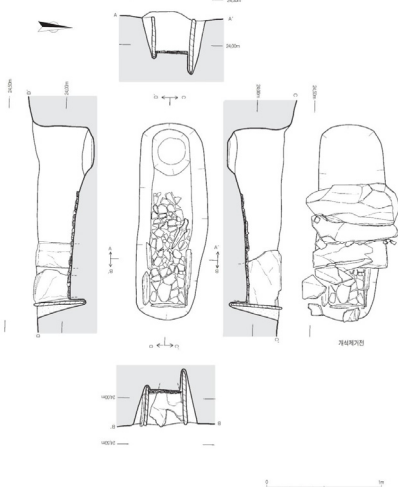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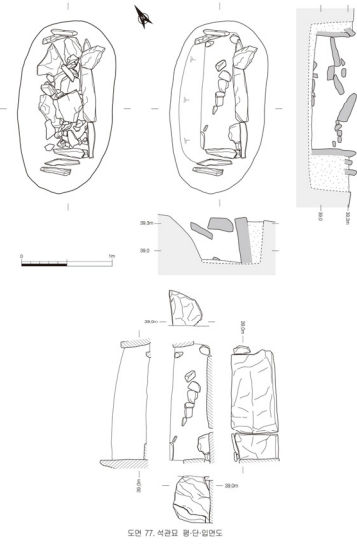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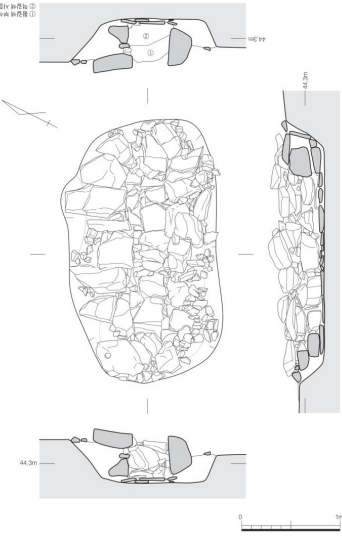


그림 11. (좌) 지역별 석관묘의 시상대 (우) 익산-전주지역의 토기편·할판석시상대 설치 무덤 수

표 9. 지역별 중기 석관묘

	
군산 축산리 17호 판석형석관묘	익산 무형리 포변-2호 판석형석관묘
 도면 77. 석관묘 통 단면도	
완주 상운리 나지구 판석형석관묘	전주 마전 1호 할석형석관묘

3. 부장유물의 조합과 형태

이번 절에서는 중기-후기무덤에서 유물을 부장되는 비율과 부장품의 수량, 조합,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기-후기 무덤의 부장 여부를 살펴본 결과, 중기보다 후기에 부장유물을 무덤에 매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중기 무덤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51기에만 유물이 부장되었고 후기 무덤은 전체의 55% 즉, 절반 이상의 무덤에 부장품이 매납되었다(그림 12).

부장된 유물의 수량을 보면 중기에는 두 종류 이상의 물품을 매납한 경우가 단 4기에 불과하다.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의 부장유물로는 석기나 토기, 옥기 중 한 점만이 매납되며 석기류의 비중이 높다. 부장된 석기는 석검 31기, 석촉 6기, 석부 2기, 석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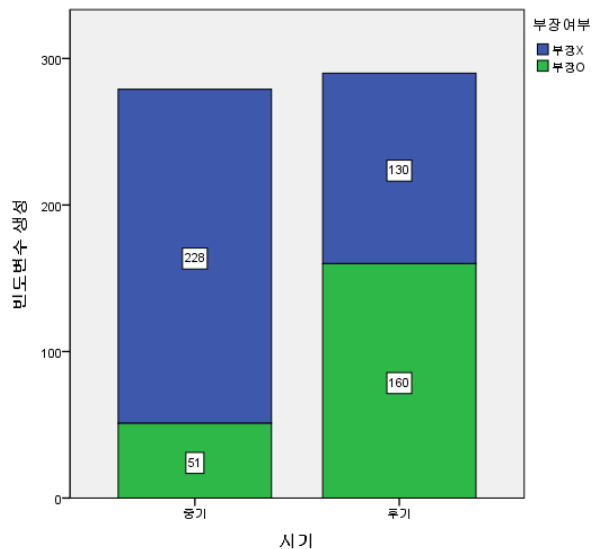


그림 12. 중기-후기 무덤의 부장 빈도

기로, 석기류 중에서도 석검의 부장률이 월등히 높다. 그런데 부장품을 매납한 무덤은 그렇지 않은 무덤과 구분되긴 하지만, 석검을 부장한 무덤 간에 입지나, 규모, 구조상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부장유물의 수량이나 조합, 종류 등에서도 다른 점이 거의 없어 석검 한 자루 이상의 차별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중기 무덤에 부장된 석검은 모두 일단병식석검이고, 형태 변형이 심한 익산 모현동2가 1호 석개토광묘 출토품을 제외하면 평균 검장 31cm, 신부 22cm, 병부 9cm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졌다. 석검의 형태적 특징은 신부와 병부 속성의 비율 비교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데(송아름 2017), 만경강유역권 석검은 큰 틀에서 금강유역 석검과 비율상의 특징이 유사하다. T자형이나 판상형도 더러 있지만, 이 일대 석검은 대개 심부 폭이 신부 폭보다 크게 과장되지 않고, 병두부와 심부가 1:1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석검류는 낙동강·섬진강·영산강유역의 특징적인 석검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석검은 큰 스케일의 지역 간 비교에서는 차별화된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 만경강유역권 내에서는 세부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석검형태에 여러 변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역성으로 볼만큼 유의미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유적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기 무덤과 대조적으로 후기 무덤들은 부장품의 종류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6개 가량이 부장되어 편차가 크다. 유물의 재질이나 종류 또한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로 다양해서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입수하기 위한 기술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부장품 조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그림 13, 표 10). 후기 무덤에서 유물을 부장하지 않는 비율은 익산 61%, 전주 59%, 김제 48%, 완주 36%로, 완주의 무덤 부장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후기 무덤에서 관찰되는 높은 무덤 부장률은 부장품을 무덤에 매납하는 관습이 점

차 심화되었거나, 부장품을 매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부장유물의 조합을 살펴보면, 토기나 석기 등 단일 유물의 부장률은 김제 43%, 완주 35%, 익산 25%, 전주 22%로 확인된다. 청동기, 토기, 옥기를 부장한 비율은 김제 5%, 완주 23%, 익산 6%, 전주 19%로 완주와 전주의 부장률이 높다. 청동기가 부장된 무덤을 보면 청동기만을 부장하거나 토기·석기·옥기류와 함께 부장하는 등 다양한 부장 양상이 관찰된다. 만약 이를 기종이나 기형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비율이 높은 완주와 전주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를 다양한 조합으로 부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기, 석기 등 단일 유물의 부장률만 높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완주, 전주 일대 무덤군에서는 한층 더 분화된 부장양상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평·덕동·갈동·원장동·만성동 일대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청동유물이 다수 확인되어 만경강유역권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지역이다. 사회의 복잡성이 진전되면 구분의 경계가 다층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완주와 전주지역에서 보여지는 높은 부장률과 부장유물 조합의 다양성은 무덤을 쓰고 부장품을 매납할 수 있는 계층 수의 증가와 그 안에서도 서로 상이한 조합과 수량의 물건을 부장하였던 계층 간의 분화를 반영한다.

끝으로 무덤에 부장된 철기 수량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완주와 익산지역에서 높은 빈도가 확인되었다(그림 13). 철기 유물이 출토된 무덤은 후기 무덤 중 비교적 확실한 시간성을 가진다. 다양한 철기유물이 출토된 신평·갈동과 마동·신동리유적이 위치한 완주와 익산지역은 후기 무덤군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처럼 완주, 익산지역에서 철기유물을 부장한 무덤들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무덤 축조가 후기 문화의 중심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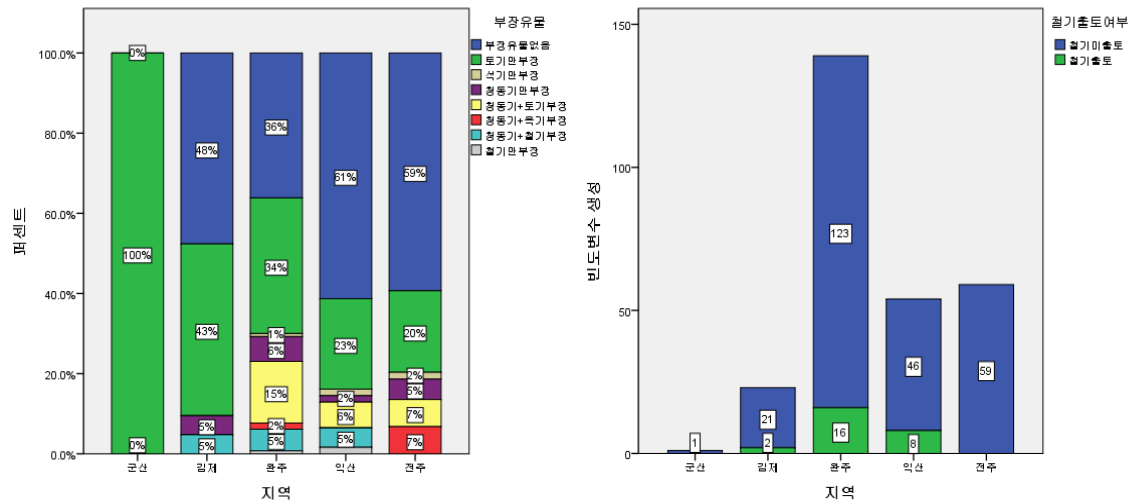


그림 13. (左) 지역별 후기 무덤의 부장유물 조합, (右) 지역별 후기 무덤의 철기 출토량

표 10.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부장유물 조합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군산	둔을 1호	●					완주	신평 I 가-41호	●				●
김제	반월리·부용리 2-1호	●						신평 I 가-42호	●	●	●		●
	반월리·부용리 2-2호	●						신평 I 가-43호	●			●	●
	부거리XII 1호	●						신평 I 가-44호	●				
	상동동 I 1호	●						신평 I 가-45호	●				
	서정동II 1호				●	●		신평 I 가-47호				●	●
	서정동II 2호		●			●		신평 I 가-48호	●				
	서정동II 3호	●						신평 I 가-49호	●				
	서정동II 5호	●						신평 I 가-51호					●
	서정동II 6호		●	●				신평 I 가-53호	●	●	●	●	
	수록리A-1호				●			신평 I 가-54호	●			●	●
	수록리A-3호	●						신평 I 가-55호	●			●	
	수록리A-4호	●						신평 I 가-56호	●				●
	수록리A-6호	●						신평 I 가-57호	●	●			●
완주	갈동 I 1호	●						신평 I 나-1호	●			●	
	갈동 I 2호	●		●		●		신평 I 나-2호	●				
	갈동 I 3호	●		●	●	●		신평 I 나-4호	●			●	
	갈동 I 4호	●				●		신평 I 나-6호	●				
	갈동 II 5호	●			●			신평 I 나-7호	●				
	갈동 II 6호	●				●		신평 I 나-10호	●			●	
	갈동 II 7호				●			신평 I 나-12호	●				
	갈동 II 8호	●			●			신평 I 나-19호	●				
	갈동 II 9호				●	●		신평 I 나-21호				●	
	갈동 II 10호	●						신평 I 나-22호	●			●	
	갈동 II 11호	●		●				신평 I 나-23호	●			●	
	갈동 II 13호	●						신평 I 나-24호	●				
	갈동 II 14호				●		익산	계문동	●			●	●
	덕동D-1 1호	●	●		●			구평리II 1호	●			●	
	덕동D-1 2호	●	●		●			구평리II 2호	●				
	덕동D-1 3호	●						구평리II 3호	●				
	덕동F-1 1호	●						구평리II 4호	●				
	덕동F-1 2호				●			마동 1-1호	●				
	덕동G-1 1호	●			●			마동 1-2호	●	●			
	덕동G-2 1호	●			●			마동 1-4호	●				
	둔산리 서당 1-3호	●			●			마동 1-5호	●				●
	둔산리 서당 1-4호				●			마동 1-6호					●
	둔산리 서당 1-5호				●			마동 1-7호	●	●			
	둔산리 서당 2-1호	●			●			마동 1-18호	●				
	둔산리 서당 2-3호	●						마동 1-19호	●	●			●
	둔산리 서당 2-4호	●			●			마동 1-23호	●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지역	유 구 명	토기	석기	옥기	청동기	철기
	둔산리 서당 2-5호	●					전주	마동 1-24호	●	●			
	둔산리 서당 2-6호	●						마동 1-26호	●				
	둔산리 서당 2-8호	●						마동 1-27호	●			●	●
	둔산리 서당 2-12호		●					마동 1-28호	●				
	둔산리 서당 2-13호	●						마동 1-30호	●				
	둔산리 서당 2-14호	●			●			마동 1-31호	●				
	둔산리 서당 2-15호	●						부송동 석치고개 4호	●				
	둔산리 서당 2-17호	●			●			서두리1 1호				●	
	청등 수계리 1호	●						송학리		●			
	청등 수계리 2호	●						신동리 6-1호	●				
	청등 수계리 3호	●	●					신동리 7-1호	●			●	●
	청등 수계리 5호				●			신동리 7-2호	●				●
	반교리 8호	●						오룡리 3지점	●	●		●	
	신평 I 가-2호	●			●			오룡리 4지점	●				
	신평 I 가-3호	●						오룡리 5지점 1호	●	●		●	
	신평 I 가-5호	●						오룡리 5지점 2호	●			●	
	신평 I 가-7호	●						반월동 265 1-1호	●	●	●	●	
	신평 I 가-8호	●						반월동 265 1-2호	●			●	
	신평 I 가-9호	●						여의동 2-1지점 1호	●				
	신평 I 가-10호	●						원만성 I -1호		●			
	신평 I 가-11호	●						원만성1-4 1호	●	●	●	●	
	신평 I 가-13호	●						원만성1-4 2호	●				
	신평 I 가-15호	●						원장동G 1호			●	●	
	신평 I 가-16호	●						원장동G 2호	●			●	
	신평 I 가-19호	●			●			원장동G 3호	●			●	
	신평 I 가-22호				●	●		원장동G 4호	●				
	신평 I 가-24호	●						원장동G 5호	●			●	
	신평 I 가-25호	●						중동A 다-1호	●				
	신평 I 가-27호	●						중동A 라-1호				●	
	신평 I 가-29호	●						중인동 1호	●				
	신평 I 가-30호	●						중인동 3호	●				
	신평 I 가-31호	●			●			중인동 5호				●	
	신평 I 가-32호	●						중인동 6호	●				
	신평 I 가-33호	●						중인동 7호	●				
	신평 I 가-34호	●						중인동 9호	●				
	신평 I 가-35호				●			중화산동 2호				●	
	신평 I 가-36호	●				●		중화산동 8호	●				
	신평 I 가-37호	●						중화산동 12호	●				
	신평 I 가-39호	●						중화산동 14호	●				
	신평 I 가-40호				●	●		효자4 III지구			●	●	

Ⅲ.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사회문화적 변화

지금까지 본고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을 변별하고, 무덤 자료에 내포된 중기-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유적의 공간적 분포, 유구의 입지 및 구조, 유물의 조합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된 자료와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유적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방식, 무덤 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부장품의 제작과 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에 둔다.

1. 유적의 분포에 반영된 집단의 공간 활용

유적의 분포 패턴은 통시적·공시적으로 집단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고는 만경강유역권 내 중-후기 무덤유적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여, 당대 집단들이 만경강유역권에서 점유하였던 공간 패턴을 비교하였다. 공간적으로 중기-후기 무덤의 주요 분포범위와 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중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익산 무형리·어량리유적 일대와 군산 축산리유적일대,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유적 일대이고, 후기 무덤의 중심분포지역은 완주 신평, 익산 마동유적, 전주 원장동·만성동 일대이다. 중기 무덤 중심분포지역은 여타 무덤분포 권역에 비해 현저한 차이의 밀도로 집중되지 않는다. 중기 무덤 축조집단은 익산 북부, 군산 동부, 전주 서부지역에 중규모의 거점을 두었으며, 인접한 범위에 중소규모의 무덤을 축조하며 분산되었던 모습이다.

이에 반해 완주와 익산지역에 거처한 후기 주민들은 완주 신평, 익산 마동유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밀도로 무덤을 축조해 나간다. 중소규모의 후기 무덤군은 익산 구평리, 오룡리, 서두리, 김제 서정동, 수록리 일대와 같이 중기 무덤군 입지한 공간의 인접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분포한다. 그로 인해 완주, 익산 일대의 중심 무덤군의 규모와 밀도는 김제와 익산 중부의 등 여타 후기 무덤군과 비교해 더욱 차별화되게 된다. 완주, 익산 일대의 후기 무덤군들은 대체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후기 무덤군의 중심분포권을 이루는 완주 신평·갈동·덕동, 익산 마동 일대는 중기 거점 무덤군의 외곽지역으로 중기 무덤의 분포율이 낮았던 지역이다. 이는 완주와 익산지역에 거처한 후기 주민들이 선주민이 축조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낮은 공간을 선택하여 무덤군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주지역의 경우 만경강 남부지역에서 중기 무덤군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곳에 후기 무덤군이 조성되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동산동, 효자동, 송천동 일대는 만경강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만경강유역권 전체에서 중기 주거유적이 최대규모로 분포하였던 곳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분포 분석에서 확인된 지역성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중기 무덤과 주거지의 중심분포권은 거의 일치하되 무덤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주거지가 넓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익산, 군산 등 북쪽지역은 무덤의 수에 비해 주거지의 수가 적고, 김제, 완주, 전주 등 만경강 남쪽지역은 무덤 수에 비해 주거지의 수가 현저히 많은 분포 패턴을 보인다. 특히 전주 일대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기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중기 생활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중규모의 후기 무덤군이 입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기-후기 무덤과 중기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내포된 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간 분석 범위를 낮춰 단일 유적 내에서 매장-생활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85개소의 유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중기 무덤군, 중기 주거지군, 후기 무덤군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는 149개소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익산 용기리 I, 군산 고봉리Ⅱ 등 일부 유적에서는 중기 무덤과 주거지가 동일한 입지에 공존하거나 선후를 가지고 축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산 축산리, 전주 동산동, 반룡리 I, 원만성 I, 익산 모현동섬다리, 어량리 가구역 등 동일 유적 내 상호 가시권 안에 있는 주거지와 무덤군이 인위적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입지해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무덤과 주거지의 공간이 분리되는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한 유적 내에 중-후기 유구가 입지해 있는 경우, 김제 상동동 I, 완주 신평 I 가, 익산 마동 I, 부송동석치고개 유적 사례와 같이 대개는 후기 무덤이 중기 유구와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효자 함대Ⅴ, 효자4Ⅱ, 여의동2-1, 원만성1-4, 원만성A, 필천리북대C-1유적에서 중기 주거지가 입지한 공간에 후기 무덤이 혼재해 있거나, 중기 주거지를 파괴하고 후기 무덤이 중복후행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주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주지역에서는 후기 무덤군이 중기 주거유적 중심지에 조성되며, 미지형상에서도 기존의 중기 주거지를 파괴하거나 동일한 입지에 만들어졌던 맥락이 간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후기 이주민이 선주민의 묘제가 입지해 있는 기존 점유지역을 피해 빈 공간으로 이동한 까닭에 완주지역과 익산 남부 일대로 먼저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밀도가 높은 중심권을 형성하였던 후기 이주민이 이후 인접 지역인 전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선주민이 점유하고 있던 중심 공간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 가설은 완주, 익산지역 대규모 후기 무덤군의 초축 연대가 초기 이주민의 연대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다.

두 번째는 후기 이주민이 애초에 선주민의 중심생활권역으로 이주하여 우세를 점한 다음 주변부로 이동하여 세력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서 집단의 이주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주민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공백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주지의 중심생활권으로 이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심지를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선주민이 오랜 기간 정착하며 세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즉, 초기 이주민은 대규모의 중기 취락이 입지해 있던 전주지역에 정착하였고, 이후 인근의 완주지역이나 익산 남부지역으로 그들이 이동하거나 새로운 유이민이 유입되어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가설인 셈이다. 이는 유독 전주지역에 중기와 후기 유구가 동일한 입지를 공유하며 혼재해 있거나 후기 무덤에 의해 선대 유구가 파괴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개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후기 무덤이 밀도 있게 입지해 있는 익산 마동·신동리, 완주 신평·갈동유적에서 철기가 부장된 무덤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 일대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점유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후기 문화가 들어오기 전 만경강유역권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중기 문화의 지역성에 따른 다양한 정착 과정의 양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유를 명확히 알긴 어렵지만 자료가 보여주는 확

실한 패턴 중 하나는 중기 주민이 만경강유역 북쪽과 남쪽 일대의 공간을 달리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 때문일 수도 있으나, 각 지역에서 주를 점하는 유구가 시기와 종류를 달리해 분포하는 비율의 패턴은 확률적으로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위 가설들은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 유구의 분포 양상에 착안해 세운 초보적인 것들로, 관련 내용은 향후 유적 간 시기 분석 및 이론적 접근을 병행하여 발전시키기로 한다.

2. 무덤 축조 공정에 반영된 사회 규범

무덤은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과 당대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담은 건축구조물로서, 무덤의 입지 및 구조에는 그 사회가 합의하여 행하고 제약을 받는 규칙이 반영되어 있다. 본고는 무덤 축조방법 및 기술의 정형화 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당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 규범의 특징과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무덤이라는 건축구조물은 축조 자체가 차별화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축조방법의 차이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축조 과정이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된 경우에는, 부장유물이나 경관과 같은 다른 맥락을 통해 차별화가 시도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서 분석된 중기-후기 무덤의 입지 및 구조적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중기 무덤은 지석묘 12기, 석관묘 99기, 석개토광묘 45기, 토광묘 45기, 옹관묘 78기이다. 만경강유역권은 여타 전북지역에 비해 지석묘의 축조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동일한 송국리문화권에서도 자연·인문지리적 경계에 따라 다양한 묘제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만경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묘제들은 송국리형묘제라고 불리는 것들로, 금강과 만경강유역권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성을 가지며 분포한다. 이는 남한 지역에서 송국리문화와 함께 성행하였던 무덤을 짓는 행위가 지역별로 무덤을 달리 축조하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적인 통합과 지역 외적인 차별화가 진전되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스케일을 달리하여, 만경강유역권 내에서 지역별 묘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지역성이 감지된다. 군산지역은 석관묘가 절대 다수를 점하였고, 익산지역은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옹관묘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석묘의 비율이 높고, (석개)토광묘가 다수를 점하며 지역성을 보인다. 그리고 만경강 남쪽의 완주와 김제에서는 중기 무덤의 수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석개)토광묘의 비율이 높아 일정 부분 인접한 전주지역과 맥을 함께한다. 반면, 만경강유역권 후기 무덤의 종류는 토광묘가 전체의 91%에 달하며 굉장히 높은 통합도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묘제가 선택되었던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무덤의 입지 및 구조는 사자를 위한 장지의 선택과, 시신을 안치 방향,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관을 짜는 재료와 방법, 시신의 안치 형태, 무덤의 밀봉 방법, 무덤 영역의 표식과 구획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 사회의 일원들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동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규범이기도 하다. 중기-후기 무덤은 묘제뿐만 아니라 무덤의 입지, 장축방향, 규모, 동일한 묘제의 세부 구조 전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의 분포 패턴에 반영된 선택지의 다양성이나, 규범의 정형성에서도 관찰된다. 실로

중기에는 무덤의 입지나 장축방향,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변이가 확인되는 반면, 후기에는 구릉 사면부에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장축길이 2m 정도의 세장방형 토광묘를 설치하는 방식이 일률성 있게 실천된다. 무덤의 구조에서도 중기 무덤은 시상대를 마련하는 작업, 관재를 선택하여 벽석을 만드는 작업, 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관을 정치하는 방법 등의 공정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 해당 지역의 관습성·전통성이 강한 특징은 무덤의 종류를 초월해 적용된다.

그동안 청동기시대 중기 무덤의 다양성에 비해, 후기의 토광묘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현상기술 측면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후기 사회문화의 화려한 부장유물만큼이나, 이제는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된 무덤의 축조행위에는 그 사회의 규범과 그것이 얼마나 복잡화된 사회의 산물인가가 담겨있다.

3. 부장품 제작·사용에 반영된 계층의 통합과 분화

부장은 매장례를 위해 제작된 물건이나 일상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시신과 함께 무덤 안에 매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장품은 기본적으로 매장례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더 이상 그 물품이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도 사자를 위해 소비되는 재원이다. 이와 같은 소비재의 종류와 수량에는 각 집단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맥락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을 단순히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된 유물의 재질과 종류, 수량, 조합, 형태적 특징은 그 사회의 도구 제작 기술과 시스템 및 노동력의 분화 수준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시기 무덤 부장유물의 종류, 수량, 조합 및 형태적 특징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는가에 따라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와, 사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차별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만경강유역권 중기-후기사회는 무덤에 유물을 부장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 중기에는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일부 무덤에만 부장품이 매납되는 반면, 후기에는 전체의 55% 즉, 절반 이상의 무덤에 1점 이상의 부장품이 매납된다. 무덤을 쓸 수 없는 다수와 무덤을 쓰는 소수로 구분되던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무덤을 쓰고 그중에서 물건을 부장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는 구조로 변화했다면,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만약 부장된 유물의 종류, 수량, 조합 및 형태적 특징에서도 다양성이 크게 확장되었다면 한층 더 세분된 분화와 통합을 의미한다.

만경강유역권 중기 무덤에는 석기나 토기, 옥기 중 한 점만이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전 지역에서 석검의 부장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부장품을 매납한 무덤은 부장품이 없는 무덤과 구분되긴 하지만, 석검 한 자루를 부장한 것 외에는 무덤의 입지나, 규모, 구조상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한편, 이 일대의 일단병식석검 형태는 금강유역권의 그것과 유사하여 낙동강이나 섬진강·영산강유역에서 만들어진 석검과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중기 사회에서 무덤을 축조하고 부장품으로 석검을 사용하였던 집단들은 석검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 지역 간의 차별화와 지역 내적인 통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석검은 일률적으로 제작된 공산품이 아니기에, 각각의 형

태에서 무작위적인 변이들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이는 세부 지역성으로 구분될 만큼 유의미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후기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기종의 유물들이 부장품으로 활용되며, 그 수량 또한 1점에서 16점 이상으로 편차가 크다. 유물의 조합 또한 단일 유물을 매납한 것에서부터 토기+석기+옥기+청동기+철기를 매납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기종이나 기형별로 구분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부장유물의 다양한 조합은, 여러 조합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분화를 보여준다. 특히 후기사회에서 무덤은 이전 시기보다 무덤을 축조하고 사용하는 규범의 정형성이 진전되면서 사회구성원의 다수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구별짓기 행위는 무덤 시설보다 사자와 사자의 가족이 사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던 부장 유물의 양상에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로 후기 무덤문화의 중심지인 완주 신흥유적에서는 전체 무덤의 64%에 부장유물이 매납되었고, 조합별 부장물이 토기·석기 34%, 청동기 포함 28%, 청동기 단독 6%, 청동기와 옥기 2%로 상이하게 분포하여 무덤 간의 부장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부장품 자체가 보여주는 질적인 차이 못지않게, 후기 사회가 중기보다 훨씬 더 다층화되고 복잡한 사회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중기-후기 무덤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장지를 정하고, 무덤 구조물을 축조하고, 부장품을 매납하였던 사람들의 행위에 담긴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익산 무형리·어량리, 군산 축산리, 전주 여의동·만성동·동산동 일대에 무덤군의 중심분포권이 형성되었다. 무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청동기시대 중기는 그 자체로서 이전 시기와 대비되며, 생활공간과 매장공간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간 활용방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의 무덤군은 중심분포권의 밀도가 주변과 비교해 현저히 높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무덤군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완주, 익산 남부와 같이 중기 무덤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 중심분포권이 형성되었으며 그 일대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 높은 밀도로 무덤군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전주지역에서는 중기 무덤 분포권에 후기의 중규모 무덤군이 분포하며, 중기 무덤·주거지가 입지한 공간에 후기 무덤들이 혼재하거나 중복후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확인된다. 전주지역은 대규모의 중기 취락이 입지하며 만경강유역권 생활공간의 차별적인 중심지를 형성했던 곳이다. 이에 본고는 중기-후기 유구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설명하는 가설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서 집단의 이주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주민의 생활중심지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선주민이 오랜 기간 정착하며 세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는 더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인접 지역에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했던 두 집단의 사회적 특징을 무덤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양상을 통해 가늠해 보았다. 중기 무덤은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토광묘, 옹관묘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로 선호했던 무덤의 종류는 물론 같은 묘제의 세부구조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가 확인된다. 중기에는 무덤축조 관습을 가진 송국리문화집단이 각지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환경과 집단의 선호도에 따라 무덤축조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을 지역 단위로 실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지역을 초월한 무덤 양식의 통일성이 나타나며 무덤 구조상에서도 편차가 줄어든다. 즉, 무덤의 축조가 하나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면서 동일한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얼마나 복합화된 사회의 산물인지를 내포하고 있다.

부장유물의 출토양상에서도 중기에는 전체의 일부 무덤에만 부장품이 매납되며 부장품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기 무덤 부장품으로 주로 사용된 석검의 특징은 같은 유적 내나 소지역별로는 관찰되지 않고, 금강유역권(만경강유역권 포함)-낙동강유역권-섬진강·영산강유역권과 같은 큰 스케일에서 지역 내적인 통합화와 지역 간의 차별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후기에는 부장품이 매납된 무덤의 비율이 증가하며 지역 내 무덤 간 부장 양상의 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해진다. 이는 무덤을 쓸 수 없는 다수와 무덤을 쓰는 소수로 구분되던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무덤을 쓸 수 있는 계층으로 통합되는 한편 부장품을 매납하는 양상에서는 한층 더 분화되며 다층화된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 김규정,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호남고고학보 9.
-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서울: 서경문화사.
- 김승옥, 2017, 「만경강 일대 선사문화의 전개와 성격-전북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5.
- 송아름, 2017, 『남한지역 마제석검 형태 변이의 시·공간적 분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호남고고학보 50.
- 양영주, 2013,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울: 서경문화사.
-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호서고고학 44.
- 한수영, 2011,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기 목관묘 연구」, 호남고고학보 39.